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8년 12월 15일

제 32 호

• 발행인 : 임국희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4278-0450, 070-7501-3842

특별 이벤트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

11월 6일 동아제약 천안 공장 견학 12월 5일 송년 음악감상회

한 해 막바지에도 아나운서클럽을 위한 특별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아나운서클럽(회장 임국희)은 11월 6일 황우겸 고문의 주선으로 클럽 회원 30여 명과 경기·이화여고 동문 등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아제약 천안 공장(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을 견학했다.



건강 상식 하나라도 놓칠세라 경청하는 모범 견학생들

오전 8시 40분 대절 버스로 압구정역 공영 주차장을 출발, 죽전 정류소에서 경기 지역 회원 10명, 그리고 천안 현장에 충북 청주의 전옥수, 조영숙 회원이 합류해, 누적 매출 200억 병, 연매출 2,000억 원에 달하는 박카스 제조 과정과 정제 알약 생산 공정 등을 둘러보고 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황우겸 고문의 오랜 지기인 동아제약 강신호 명예회장의 배려로 천안 공장장 김진구 상무의 지휘 아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건강 상식도 넓은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어 12월 5일 오후 3시 30분에는 세실아트홀(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실음악원 지하 1층)에서 유리디체 음악감상회(회장 정홍숙) 주관으로 아나운서클럽을 위한 송년 영상 콘서트가 열렸다. 음악평론가인 선병철 지도 교수의 해설에 반했다는 황우겸 고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선 교수가 아나운서

클럽을 위한 특별 송년 음악감상회를 제안해 이루어진 것이다.

4년 전부터 유리디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재익 회원은 이번 영상 음악회 개최에 일익을 담당했고, 아나운서연합회 염용석 회장은 후원금과 화환을 보내 선배들의 송년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올라온 주건국, 권장수 회원 등 클럽 회원 30명과 유리디체 회원 등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선병철 교수의 해설로 쓰리 테너가 부르는 'My way부터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의 4악장 '환희의 송가'(An die Freude, 쉐러 시)까지 송년에 어울리는 명곡들을 DVD로 감상했다. 특히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은 앵콜이 나와, 18년 영상 음악회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곡을 연거푸 감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감상회 후 참가자들은 근처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음악의 감동을 나누며 한 해를 격조 있게 마무리했다.



2000년부터 매주 영상 콘서트를 이끈 해설자에 탄복하다

동아제약 천안 공장 견학 시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지내자!"라고 한 임국희 회장의 인사말처럼 아나운서클럽은 새해에도 우의를 다지며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 마련에 힘쓸 것이다.

3면 사진 KBS사우회 김광일 부회장 촬영

송/년/사

관용과 평화 정신으로 서로 공경하고 아끼기를

활력과 애정 넘치는 클럽을 만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임국희(전 MBC) 회장

어느덧 2018년도 다 지나가고 이제 4년간의 회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든든한 선배님들의 격려와 유능하고 열정 넘치는 후배들의 완벽한 지원이 아니었더라면 엄두도 내지 못 했을 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일도 많았고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아나운서클럽에는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아나운서는 참으로 고독한 직업이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해결하고 결단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고독한 직업을 평생 지켜온 사람들이 모여, 이제는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큰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유대인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음악으로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나누어주는 다니엘 바렌보임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세계 시민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용기 있게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청소년들을 음악을 통해 화합하게 하려는 획기적인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공연하기도 했지요. 철천지원수처럼 싸우는 양쪽 편을 오가며 그는 음악을 통한 관용과 평화와 공존의 기운을 퍼뜨립니다. 음악을 통하여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아나운서클럽이 추구해야 할 것도 이와 같은 관용과 평화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들이 등례상향等禮當尙의 정신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그 경애敬愛의 마음으로 힘을 합쳐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한결음씩 함께 나아가는 아나운서클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아나운서클럽을 활력과 애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모든 선배님들과, 아름답고 훌륭한 시간을 보내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저를 이어 새해에 아나운서클럽을 맡게 되실, 잘 준비된 후배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아나운서 만세, 만세, 만세!

장애인 위한 제1회 패럴스마트폰영화제 중계 재능기부

개막식 : 최창섭 유지현

폐막식 : 김성길 이혜옥



50+코리안과 함께한 이혜옥 김성길(아랫줄 왼쪽 4, 5번째) 회원

아나운서클럽이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주관으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이화여대 ECC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린 제1회 패럴스마트폰영화

제 개막식과 폐막식 실황을 50+코리안 미디어협동조합(이사장 현정주)과 함께 SNS로 중계하며 재능기부에 나섰다.

'꿈 꿀 자유, 영화는 자유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장애인 스마트폰 영화제에서 개회식,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된 개막식 행사 중계는 최창섭(전 MBC), 유지현(전 SBS) 회원, 그리고 21개 부문, 43개 팀을 시상한 폐막식 중계는 김성길·이혜옥(전 KBS) 회원이 맡았다. 오랜만에 방송 마이크 앞에 선 네 명의 진행자들은 한결같이 "뜻깊은 행사였다. 모든 분들이 열정과 애정으로 힘을 모은 시간이어서 빛났다."라고 말했다.

2018 한국 아나운서 대상 수상자 발표

2018 대상 MBC 최초 여성 아나운서국장 황선숙
아나운서클럽상 오승훈(MBC) 조은유(OBS)
장기범상 BBS 아나운서부 야마시타 도오루(일본 NHK 국제방송국)



아나운서연합회(회장 SBS 염용석)가 주최하는 2018 한국 아나운서 대상 시상식이 12월 28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영예의 대상은 MBC 황선숙(사진) 아나운서가 받는다.

고려대 생물학과 졸업 후 1987년 입사, 연세대 보건대학원을 나와 건강 프로그램 전문 진행자로 활약한 황선숙 아나운서는 올 10월부터 다시 표준FM 의학 프로그램 <건강한 아침 황선숙입

니다>를 맡고 있다. 2015년 타부서 발령 후 2017년 파업 종료로 아나운서 부국장으로 복귀했으며 올 11월 MBC 아나운서 최초로 여성 아나운서국장으로 승진했다.

최만린 고문의 작품인 트로피 수여로 성가를 높인 아나운서클럽상은 방송 진행 능력은 물론 연합회와 클럽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안팎으로 귀감이 되어온 오승훈(MBC), 조은유(OBS) 아나운서가, 이계진 부회장이 1억 원을 기탁해 제정한 장기범상은 BBS 아나운서부와 일본 NHK 국제방송국 야마시타 도오루 씨가 받는다.

부문별 수상자 명단 2면

다음 모임은 3월 5일(화) 오후 6시 30분 열빈 정기 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

2018 한국아나운서대상 수상자

아나운서클럽상



오승훈(MBC)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향해 나아가는 아나운서

카이스트 대학원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 중인 2011년, 창사 50주년 특별 기획 프로그램 아나운서 공개 채용 <신입사원>을 통해 입사한 오승훈 아나운서는 <뉴스투데이 주말>과 <5시 뉴스>를 진행 중이다. 2015년부터 3년간 아나운서국을 떠나 타 직종에서 근무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직하게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향해 나아가며 선후배 동료 아나운서 사이에서 귀감이 되었다.



조은유(OBS)

화합과 증진에 기여해 동료들 신망 두터워

고려대 언론학부 졸업 후 현대자동차 사내방송을 거쳐 2012년 경력 공개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M>, <명불허전>, <TV주치의>, <연예매거진> 등을 진행했다.

지난 2, 3년간 팀원의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아나운서팀을 떠나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조은유 아나운서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아나운서간의 화합과 증진에 기여해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장기범상



BBS 아나운서부

잘못 쓰이거나 어려운 불교 용어 알기 쉽게 전해

1월부터 팟캐스트 <잠깐, 붓다 - 바쁜 삶 속 불교 듣기>를 제작·방송하는 BBS 아나운서부(부장 이선희, 사진)는 한글대장경 연구소에서 번역한 경전 구절을 바탕으로 잘못 쓰이거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전하며 바른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야마시타 도오루 山下 透 (NHK 국제방송국)

일본인 최초 한국어 아나운서로 30년간 표준 한국어 전파에 기여

12살 때인 1973년 KBS 국제방송 일본어 방송의 한국어 강좌를 계기로 천리대학 한국어학과에 진학한 야마시타 도오루 씨는 그 후 NHK 한국어 아나운서 모집에 일본인 최초로 합격해 1988년부터 방송을 통해 표준 한국어 전파에 앞장서왔다.

라디오 진행상

시사



오탈(라디오)

제1라디오 <오탈의 시사본부>

1997년 입사, 2년여 노조 전임을 마치고 복귀해 5월부터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정오 시사 프로그램을 맡아 새로운 뉴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보빈(tbs)

<라디오를 켜라>

2010년 입사, 3년 넘게 새벽 5시 생방송을 진행하며 고단한 삶을 부지런히 살아내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하고 있다.

교양



김재홍(KBS)

제1라디오 <월드투데이>

2005년 입사, 시각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청취자 편에서 생각하는 법을 고민해왔다. 현재 1R <바른말 고운 말>도 제작 중이다.



김혜미(영동febc)

<사랑의 뜰안>

2001년 입사,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라디오 진행자 겸 복음 사역자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화합을 최선에 두고 생활해왔다.

음악



김주우(SBS)

파워FM <김주우의 팝스테이션>

2010년 입사,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김주우의 팝스테이션>, 팟캐스트 <김주우의 팝팝>, <1분 생활영어>를 진행 중이다.



최정원(CBS)

<아침 산책>, <최정원의 Beautiful Day>

1995년 입사, '1인 제작·진행', 외부 콘서트 기획 등 뛰어난 능력과 헌신으로 CBS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의 융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V진행상

시사



이영재(KBS제주)

<우영팻>

1996년 입사, <시사파일 제주>, <집중진단 제주> 등을 거쳐, 시사 토크쇼 형식의 <우영팻> 진행자로서 또 한 번 활약을 펼치고 있다.



정세진(KBS)

제1TV <저널리즘토크쇼 J>

1997년 입사, 여성 앵커로 활약했던 관록으로 지난 6월 시작된 새로운 미디어 비평 시사 프로그램의 조기 정착과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

교양



오승원(KBS)

제2TV <생생정보>

2010년 입사, <스포츠대작전>, <도전 골든벨>,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생생정보>를 맡아 활기차고 자연스런 진행 솜씨를 보여준다.



정미선(SBS)

<뉴스스토리>

2003년 입사, <8뉴스> 앵커를 거쳐 <주말 8뉴스>와 <뉴스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다. 누적 기부액 팔천만 원을 돌파한 '기부 천사'로도 불린다.

예능



장성규(tbc)

<방구석 1열> <YG보석함>

2011년 입사,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이는 예능 진행자로서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아나운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정지원(KBS)

제2TV <연예가중계>

2011년 입사, IQ 156의 멘사 회원으로 식견과 전문성을 두루 인정받으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와 개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앵커상



전종환(MBC)

<뉴스 투데이>

2005년 입사, 2011년 기자로 전직해 보도국에서 근무하다 2018년 아나운서국 복귀 후 아침 뉴스 앵커를 맡아 깔끔한 진행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안나경(jtbc)

<뉴스룸>

2014년 입사, 세월호 참사, '촛불정국', 선거,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역사의 현장을 전하며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뉴스 진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스포츠캐스터상



정석문(SBS)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중계

2001년 입사, 시사·경제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스포츠캐스터로서 인천아시안게임 사격, 펜싱, 태권도,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종목에서 활약했다.

공로상



유영미(SBS)

24년째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제작·진행

1991년 입사, 최장 기간 및 최고령 여성 앵커로 SBS 라디오 최장수 프로그램인 시니어 대상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24년째 제작·진행한다.



의미가 남다르고 더 따뜻한 연말이 될 것 같다
- 박민정 사무총장



동아제약 강신호 명예회장



KBS사우회 김광일 부회장(왼쪽)



고급 문화행사를 기획한 것에 놀랐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는 본보기 되길

- 이상욱 자동차순환협회 회장, 전 KBS 라디오본부장 축사





방 | 송 | 가 | 소 | 식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한국어포스터 특별 전시회 개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한국어포스터 특별 전시회가 열려 20여 년간 아나운서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내용 가운데 엄선된 포스터와 동영상 등을 선보였다.

KBS 한국어 포스터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표현과 발음, 띄어쓰기 등과 무분별한 외래어와 줄임말 등을 선별한 다음 사진과 삽화 등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은영, 이상협 아나운서 곡 '여의도 엘레지' 음원 발표



〈박은영의 FM대행진〉 연출자 서승표 PD가 추진 중인 '음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온 시에 이상협 아나운서가 곡을 붙인 세

미 트로트 '여의도 엘레지-부제 백조의 호수'를 10월 12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리틀엔젤스 합창단원으로도 활동했던 자신과 가수가 되려 했던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

아나운서 세계 최초 360° VR 토크쇼 <레드 테이블> 제작·진행



아나운서들이 직접 기획·제작·출연하는 <레드 테이블>이 10월 19일부터 4주간 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방송되었다.

이상협, 최동석, 오연중 아나운서가 연출을 맡았으며 최승돈, 오연중, 박은영, 이현주, 강승화, 박소현 아나운서 등이 출연했다.

사내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전후좌우로 찍어 소탈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을 연출한 세계 최초 360° VR 토크쇼이다.



아나운서국장 황선숙, 1부장 신동진, 2부장 박경추 임명



황선숙



신동진



박경추

11월 22일 아나운서 재교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립하고 우리말 관련 사업과 뉴미디어 사업 등을 추진한 황선숙 부국장이 MBC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국장으로 승진했고, 아나운서1부장에 신동진, 아나운서2부장에 박경추 아나운서가 발령받았다.

낭독회 <낭독, 한다고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개최



아나운서국이 12월 14일 오후 6시 30분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시인 박준과 가수 '옥상달빛'을 초청해 아나운서 낭독회 <낭독, 한다고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을 개최했다. 낭독회는 사전에 신청한 관객의 사연을 들으며 청춘의 고민을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2018 전국 MBC 아나운서 책임자 회의 개최

변창립 부사장, 강제형 전 아나운서국장, 아나운서협회 차미연 회장 등 본사 아나운서들과 전주, 여수, 부산 등 지역사 대표 아나운서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9일 전국 MBC 아나운서 책임자 회의가 열렸다.

춘천 MBC 이승현 아나운서가 제작비 삭감, 공정하지 않은 프로그램 배정, 각기 다

른 고용 형태에서 비롯되는 불안감, 화합하기 힘든 조직 문화 등 지역 방송사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국립국어원 박미영 학예연구사가 방송언어에 대해 강의했고, 유명 유튜버 '대도서관'과 '감스트'가 뉴미디어 시대 방송 전략을 아나운서들과 공유했다.

박창현, 한국어문상 방송 부문 장관상 수상



박창현 아나운서가 12월 5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어문상 시상식에서 방송 부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 아나운서는 올해부터 <우리말 나들이> PD 등 우리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신입 김수민 김민형, 라디오국 견학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2018 신입사원 공채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김수민 양과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김민형 양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후 12월 말까지 인턴 과정을 거치는 두 아나운서는 일주일간의 라디오국 연수에서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직접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배성재 '2018 올해의 SBS인' 대상 수상



배성재 아나운서가 12월 13일 창사 28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SBS인' 대상을 수상했다. 2006년 입사, 현재 파워FM <배성재의 텐> DJ를 맡고 있는 배 아나운서는 특히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러시아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까지 전문성과 재미를 갖춘 탁월한 중계로 SBS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염용석 장예원, 골든글러브 시상식 진행



염용석, 장예원 아나운서가 2018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사회를 보았다.

12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오후 5시 40분부터 SBS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박재홍, 창사 기념식서 모범상 수상



박재홍 아나운서가 12월 15일 창사 64주년 기념식에서 '모범상'을 받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실황 중계한

CBS 보도 특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김윤주 아나운서가 육아 휴직을 마치고 10월 1일부터 <오후의 향기 김윤주입니다>로 복귀했다.



가을 개편으로 일부 진행자 교체



10월 29일 가을 개편 시행으로 일부 진행자가 교체되었다. 최지혜 아나운서가 메인 뉴스인 <뉴스M> 앵커, 유

진영 아나운서가 오전 <뉴스 745>와 <945 뉴스>를 맡았다.

한편 최지혜 아나운서는 10월 7일 수원 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조선시대 최대의 왕실 행사 <정조대왕 능행차 특집 생방송>을 한신대 정조교양대 김준혁 교수와 함께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신지혜, 국제영화제 행사 사회 강의 등 다채롭게 활약



음악FM에서 20여 년간 '신지혜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신지혜 아나운서가 대외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0월 5일 부산국제영화제 부대행사 <아주담담 : 미래의 미라이>의 사회를 맡아 깊

이 있는 분석으로 감독과 관객 사이의 대화를 밀도 있게 이끌었다.

11월 13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8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을 배우 김지훈과 함께 진행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회에 걸쳐 서울시 중구청의 소규모 맞춤형 강의 '배움 한 모금'에서 <영화음악 감상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유진영 3년째 <문학산 음악회> 사회



유진영 아나운서가 9월 8일 오후 7시 문학산 정상에서 열린 제3회 <문학산 음악회> 사회를 보았다.

2015년, 50년 만에 개방해 인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문학산 정상에서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하는 음악회이다.

3년째 문학산 음악회 사회를 본 유진영 아나운서는 여유 있고 친근한 진행 솜씨로 시민들로부터 출연자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다.



이강택 tbs 신임 대표 취임



성경환 대표 후임으로 KBS PD 출신 이강택 대표가 10월 16일 취임했다. 한국PD연합회 회장, 제6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KBS방송문화연구소 소장 등을 지낸 이강택 신임 대표

는 취임식에서 “tbs가 최근 높은 청취율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 이 같은 성공의 경험을 가진 이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라디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한 TV가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혜지 <라디오 와이파이> 진행



최저는 아나운서의 육아 휴직으로 김혜지 아나운서가 FM(95.1MHz) <라디오 와이파이>의 새로운 진행

자가 되었다. 오늘의 이슈와 따뜻한 세상사를 전하는 <라디오 와이파이>는 매주 월~금 저녁 8시~9시, 95.1MHz에서 들을 수 있다.



가을철 방송 프로그램 개편

10월 22일 가을철 방송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편에서는 특히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The Melody>를 새롭게 선보이며

양질의 찬양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오후 7시에는 은혜의 간증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구성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2부>가 신설되었다.

2018 가을 음악회 열려



풍성하고도 웅장한 음악의 향연 극동방송 가을 음악회가 박진탁, 박한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

홀에서 열렸다.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전 출연진이 마지막 곡을 함께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12월 3일 라디오 대림 개편 시행

성탄을 기다리며 12월 3일부터 시행한 라디오 대림 개편으로 진행자 이동이 있었다. 신의석 아나운서가 개그맨 이동우와 함께 월~금 12시 15분부터 14시까지 방송되는 '한낮의 가요선물'을 진행한다.

지승신, 아나운서부장으로 복귀



지승신 아나운서가 2년 10개월 동안 경영관리국에서 책임을 다하고 아나운서부장으로 복귀했다. 이번 대림 개편부터 뉴스 진행은 물론, 매일 밤 말은 줄이고 음악만으로 꾸미는 <당신을 위한 BGM>을 제작·진행한다.

장채운, 프리랜서로 채용



KBS 춘천과 OBS 경인TV, 경인방송 iFM에서 활동한 장채운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로 cpbc에 합류했다. 장 아나운서는 대림 개편에 따라 오전 10시로 옮긴 <FM음악공감>과 TV <산티아고 가는 길-역사를 걸으며 힐링을 담다> 진행을 맡았다.



아나운서들의 팟캐스트 <잠깐, 붓다> 관심 모아



바쁜 삶 속에서도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들의 팟캐스트 <잠깐, 붓다 : 바쁜 삶 속 불교 듣기>가 곧 1년을 맞는다.

지난 1월 팟빵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월 네이버 오디오클럽까지 확대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잠깐, 붓다>

는 회당 3분 정도의 짧은 분량이지만 요일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월, 수, 금 요일에는 다양한 불교 경전, 화요일에는 스님들의 에세이, 그리고 목요일에는 불교 용어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불교방송 아나운서들은 새해에도 팟캐스트 <잠깐 붓다>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심표를 찍어주는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다.



손석희 사장 대표이사로 승진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이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중앙그룹은 지난 11월 20일자로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을 대표이사로 승진 발표했다. 2013년 5월 jtbc에 합류한 지 5년 만이다. 이로써 신임 손석희 대표이사는 보도 부문만이 아니라 드라마, 예능, 교양 등까지 회사 경영 전반에 전권을 쥐게 되었다.

손석희 대표이사는 국민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MBC 입사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를 받았고 아나운서국장을 지내다 2006년 퇴사했다. 이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2013년 jtbc 보도 담당 사장으로 부임해 <뉴스룸> 앵커로 활약 중이며, '시사인'이 시행한 조사에서 12년째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부문 1위를 지키고 있다.



DNA도 무시한 문자식 발음

— 현대 국어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현대 국어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필자는 써놓은 대로 발음하는 현상을 먼저 꼽고 싶다. 써놓은 대로 발음하는 것은 문자식 발음(spelling pronunciation)이라고 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문자를 익히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문자식 발음을 할 수도 있다. '김다혜입니다'는 유치원에서는 [김다혜입니다]로 할 수도 있으나, 초등 상급반이라면 [김다햐입니다]로 해야 한다. 음성언어(spoken language)의 기본은 '나라입니다'는 [나라입니다]로, '학교입니다'는 [학꾜입니다]로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말 문자식 발음은 전자기기의 합성어(synthetic language)가 많이 퍼뜨리고 있다. 내 차의 내비게이션은 신촌로터리를 [신출로터리]로 소리낸다.

우리말 외래어 합성어의 발음은 자음의 연음만으로는 부족한 말이 많다. '온라인(on line), 원룸(one room)' 등은 연음(連音, linking)이 아니라, 절음(絶音)을 한 뒤에 'ㄴ'을 첨가한다. 온라인(on line)은 [온나인], 원룸(one room)은 [원눔]으로 해야 한다, 부산 라디오 [부산나디오], 일본 라디오는 [일본나디오]로 하는 것처럼. 신촌 로터리는 [신촌노터리], 테헤란로는 [테헤란노]로 해야 한다.

라디오 DJ가 비틀즈(The Beatles)의 존 레논(John Lennon)을 [줄레논]으로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존:네논]으로 발음하면서 '존'은 짧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말에 들어 있는 존 레논은 외래어

(loanword)로 발음하고, 영어방송이라면 외국어인 영어식으로 하는 것이다.

요즘 내비게이션처럼 발음하는 방송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상캐스터들의 경우, '11도, 12도, 13도'를 발음할 때, [십·일, 십·이, 십·삼] 등으로 푹푹 끊어서 발음하는 일이 많다. 11, 12는 연음법칙을 적용해서 [시빌, 시비]로 하고, 13은 경음화를 적용해서 [십쌈]으로 해야 한다.

'이번 주, 이번 달'을 [이번주, 이번달]로 평음(平音, plain consonant, lenis)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음인 [이번쭈, 이번달]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주, 지난 달'은 [지난주, 지난달]이다. '이번'이나 '지난'은 둘 다 'ㄴ'으로 끝나는 말이지만, 품사가 다르다. '이번'은 명사이고, '지난'은 '지나다'를 기본형으로 한 동사이다.

'오늘 밤, 내일 밤'도 마찬가지다. '오늘'과 '내일'이 명사이기 때문에 [오늘밤, 내일밤]이 아닌 [오늘뺨, 내일뺨]으로 해야 한다. '지난 밤, 오는 밤'은 '지난'과 '오는'이 동사여서 [지난밤, 오는밤]처럼 평음으로 발음한다.

우리 조상들은 [지난달, 이번달], [지난밤, 오늘뺨]으로 발음하는 DNA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방송인들마저 DNA를 무시하는 발음을 하고 있다. 오히려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물려받은 DNA를 거스르지 않고 발음한다. "[이번달]에는 많이 먹었으니, [오늘뺨]에는 쉬고 [내일뺨]에 한 잔 해요."



김상준(전 KBS) 언론학박사

회 | 원 | 동 | 정

박선영(전 MBC) '올해의 인권상' 수상, 물망초음악회 주최



물망초재단 이사장인 박선영 회원이 12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이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함께 주최한 2018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재직 시 국군 포로와 납북자, 탈북자를 위한 입법 활동 및 정책 수립에 주력했으며, 임기 후 (사)물망초를 설립, 이사장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북한 인권 참

상 알리기 등 다양한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박 회원은 11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사랑방중계>로 유명했던 원종배(오른쪽 사진) 회원의 사회로 '2018 물망초음악회'를 개최했다. 탈북 여성 40명으로 구성된 물망초합창단이 매주 화요일마다 연습한 기량으로 16개국 주한 외국인 30명으로 구성된 카마라타CAMARATA와 함께 400여 명의 청중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김동건(전 KBS) 제18회 '연문인상延文人賞' 문화예술 부문상 수상



연세대 문과대학 교육심리학과 졸업생으로서 11월 7일 오후 5시 연세대 위당관 문과대학 100주년기념홀에서 제18회 '연문인상' 문화예술 부문 상을 수상했다.

학술 부문상은 조한혜정(사학) 연세대 명예교수가 받았다. 연문인상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동창회가 지난 2001년 모교의 명예를 빛내고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동문에게 수여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김병래(전 KBS) '문예시대 작가상' 수상



지난 11월 27일 오후 블레어하우스 웨딩홀 2층에서 열린 「문예시대」 시상식에서 제20회 작가상을 수상했다.

김병래 회원은 1969년 입사, KBS부산 아나운서부장으로 정년퇴임 후 경성대 사회교육원에서 스피치를 지도하고 있다. 「문예시대」 시, 「수필시대」 수필 등단 후, 부산문인협회, 부산시인협회 회원, 알바트로스시낭송회 자문위원으로서 수필집 「아나운서와 술」, 시집 「내가 사랑한 세 여인」 등을 출간했으며, 수채화가(사진 「문예시대」 표지화도 직접 그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황우겸(전 KBS) 고문 JC특우회 주최 구순 기념 이벤트



왼쪽부터 황명기 JC 전 회장 김규홍 김성경 오정연 이지연 황우겸 채영신 박민정 차인태 엄지인

축하연을 개최했다. 60여 년 전 한국JC를 창립한 황우겸 고문을 위해 한국JC특우회가 특별 이벤트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강신호 동아제약 명예회장을 비롯해 일본 오사카 교민 JC 회원 20여 명 등 1,000여 명이 함께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아나운서클럽에서도 축하사절단의 이름으로 김규홍, 차인태, 김상준, 이지연, 박민정, 채영신, 김성경, 오정연, 그리고 현



한국JC특우회가 10월 28일 오후 더 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2018년 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겸 황우겸 고문의 구순 기념

역 엄지인 아나운서가 참석해 JC 회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특히 김상준 감사가 황우겸 고문이 90세를 맞이까지 인생 역정을 회상하며 쓴 '90고개의 자화상'을 낭독할 때는 행사장이 감동의 물결로 휩싸였다.

방우회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 50년대 인기 아나운서들 현역과 환담



왼쪽부터 김현태 김규홍 민병연 문복순 윤영중 황우겸 유지철

(사)한국방송인동우회(회장 정관영)가 11월 12일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영우 고문에 이어 김상준 감사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올해 '바른말 보도상'은 KBS <뉴스광장> 앵커 이랑 기자, MBC <뉴스데스크> 앵커 왕종명 기자, SBS <뉴스브리핑> 앵커 주영진 기자가 수상했다.

한편 행사를 마친 후 1950년대 인기 아나운서였던 황우겸 고문과 윤영중, 문복순, 민병연 회원이 김규홍 부회장의 안내로 KBS 아나운서실을 방문해 1시간에 걸쳐 김현태 실장, 유지철 위원 등 후배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퇴직 후 60여 년 만에 아나운서실에서 현역들과 마주한 원로 여자 아나운서들은 "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감격스러워 했다.

아트 플래쉬(ART FLASH) 대표이사 선임



남선현(전 TBC)

12월 8일 제주LAF(LIGHT ART FESTA)를 첫 사업으로 예술과 미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주)아트 플래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남 회원은 KBS 미디어 사장과 jtbc 초대 사장 등을 거쳐 단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한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서 "제주 관광의 취약점인 제주의 야간 관광을 문화예술과 접목해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아트 플래쉬는 조천읍 다회연 녹차밭을 배경으로 세계적 조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총청 향우 전국노래자랑 심사



박영웅(전 KBS)

12월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 케이호텔에서 열린 제9회 총재배 총청 향우 전국노래자랑 심사를 맡았다.

이번 노래자랑에는 채영신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박영웅 회원은 홍성, 채영신 편집위원은 천안이 고향인 충남인이다.

새해 2월 <임금수 가곡의 대향연> 사회



채영신(전 KBS)

2019년 2월 26일(화)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릴 '강 건너 봄이 오듯(바보 할매)' <임금수 가곡의 대향연>의 사회를 맡게 된다.

이날 음악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성악가들과 300명의 합창단이 출연하는 대규모 가곡의 향연으로 펼쳐진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독학사) 취득



이현우(전 MBC)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독학사)을 11월 2일 취득했다.

사회복지학 박사이면서도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정진하는 이 편집위원은 앞으로 우리 클럽 회원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 제주 서귀포 주민 대상 무료 강연



이금희(전 KBS)

10월 26일 오후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노원교양대학에 이어 11월 15일 오전 서귀포 시청 별관에서 '더불어 살며, 서로 헤아리며'를 주제로 강연했다. 1989년 입사, 2000년 프리랜서를 선언한 이 회원은 2016년까지 <아침마당>을 진행했으며, 현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로서 KBS 2FM <사랑하기 좋은날>과 EBS 라디오 <다문화 음악여행> DJ, EBS TV <한국기행> 내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박찬숙(전 KBS) 부회장 방송 50년, 숙명여대 스노우 모임에서 축하 자리 마련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12시, 지하철 신용산역에서 내리니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환상적인 건물 입구가 나왔다. 아모레퍼시픽 건물 2층에 있는 파르크라는 한 식당에서 7명이 모였다.

숙명 출신으로 언론·출판에 몸담고 있는 선.후배 모임인 S.now(스노우) 소속 이금희, 이익선, 이정애, 채영신, 박민정, 전찬희 등 6명이 자칭 '정에 부대'로 박찬숙 선배님의 방송 인생 50주년을 기리는 자리였다. 연말을 맞아 후배들과 조출한 점심식사나 하는 자리라

니 생각하고 나오셨다가 꽃바구니와 상패 선물을 받고, 선배님은 어떤 축하 자리보다 기쁘다고 하시며 최초의 여성 앵커로서 자부심과 함께 해직의 고통까지 반백년의 방송 인생을 반추하셨다.

소설가로, 수필가로, 수없이 많은 유명인사 인터뷰이로, 국회의원으로 짝 찼던 시간을 뒤로 하고 요즘은 사진을 찍으며 좀 여유롭고 싶어하지만 아직도 선배님을 찾는 모임이 많은 걸 보면, 박찬숙 선배의 제2의 인생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진다. 글 / 박민정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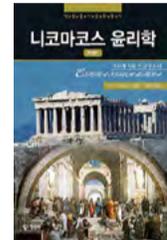
전영우(전 KBS) 고문 완역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전영우(전 KBS 아나운서실장, 동아방송 부국장·해설위원, 수원대학교 교수) 고문이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윤리학서로 평가받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대원사)을 번역·출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강론 내용을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가 편집 정리해 10권으로 구성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사람이 살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추구하는 바를 이루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시하고 해답을 이끌어낸다.

흔히 철학 관련 서적은 용어가 생경하고 내용도 난삽難澁해서 지레 외면해 버리기 일쑤지만 이 책은 다르다. 행복이나 도덕, 사랑과 우정 또는 쾌락과 고통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제들을 쉬운 문장으로 간결하게 다루고 있어 친근감을 준다. 책으로 엮인 지 2,300년을 헤아리는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다. 그 많은 세월이 흘러도 서양 윤리학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우뚝 서고, 르네상스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인간형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이유일 터다.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긴 전영우 고문은 '우리말 화법'



연구에 한평생을 바치며 '국어화법', '표준 한국어 발음사전' 등 화법 관련 서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등 많은 번역서를 출간해 온 국어학자다. 그는 화법의 기본인 '올바른 듣기와 말하기'를 늘 강조해 왔다. 책의 부제副題를 '바르게 사는 인간의 도리'라고 새로 붙인 것이나, 문장부호와 독점讀點을 많이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독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성심껏 도우려는 배려가 페이지마다 묻어난다.

- 황유성(전 DBS, KBS 국제방송 부주간, 수필가)

신은경(전 KBS) 수필집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그것도 예수를 꼬박 산 시점에 나이 들을 생각해 보는 글을 모은 것은 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

새 책은 <백세시대신문>에 실렸던 칼럼을 중심으로 쓴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Embracing)」

(마음의 숲)라는 에세이집이다.

칼럼 연재를 요청받은 것은 5년 전이었다. 노년에 관심을 두기엔 내가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 때만 해도 나는 50대 중반이었으니까. 남의 일 건너

다보듯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는 칼럼이 꽤 쌓여갔고 내 나이도 들어갔다. 실버 세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변화가고 비로소 나도 그들과 같은 세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나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는 노년으로 들어섰을 때가 아닌 그보다 훨씬 이전, 바로 4.50대라는 점이다.



나에게 골든에이지란 나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주변에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은 한마디로 '아름답다'이다. 그래서 지는 해가 아니라 또다시 불타오르는 불꽃으로 사는 골든 에이지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고 싶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생각은 살아가는 일은, 특히 늙어가는 일은 매뉴얼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가장 나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삶에 대한 태도도 환경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건강도, 재정도, 가족관계도, 일을 하고 그만두는 시기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할머니로, 글을 쓰며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저자 글에서 발췌



이창호 전 KBS 아나운서실장 별세

10월 2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943년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해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입사했다. <행운의 스튜디오>, <열전 팔도대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V쇼 진품명품> 등을 진행한 인기 아나운서로 아나운서실장을 지냈다.

미주통신 '미주 방송인의 밤' 성료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형준 Radio Korea 진행자(라디오 부문 수상자), Mrs. 최성관, 송봉후 We Korea 대표 겸 앵커, Mrs. 김홍수, 이현주 Radio Korea 진행자, 고선미 Radio Korea 진행자, Mrs. 이병훈, 문상열 Radio Seoul 진행자, 나영욱(전 MBC), 문지현 전 KBS MC, Mrs. 홍우창, Mrs. 신유호, 최성관 전 KBS 카메라, 신유호 Woori Radio, 김정수 MBC 사우회 미주 회장, 이정원 Radio Seoul 진행자, 하성욱 SBS international 앵커(TV 부문 수상자), 스티라박 Radio Korea 진행자, 이영돈 Radio Seoul 진행자, 김미희(전 KBS), 이영호(전 TBC), 김홍수 여의도클럽 미주 회장, 이병훈 전 KBS 군방송 PD, 정영호(전 KBS), 홍우창(전 TBC), 김봉규(전 HLKZ-TV), 안태석, 이종만 전 KBS 텔런트

미주방송인협회(회장 홍우창)는 11월 17일 오후 5시 용수산 1층 연회실에서 열린 2018 미주방송인의 밤에서 제4회 미주방송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몸과 마음이 바쁜 12월을 피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방송인 40여 명이 참석해 친목과 우의를 다졌으며, 협회지 「미주방송」 제13호가 발간·배포되었다.

제4회 미주방송인상 라디오 부문 상은 김형준 Radio Korea 아침마당 진행자가, TV 부문 상은 하성욱 SBC International 뉴스 앵커가 받았다.

고맙습니다

12월 10일까지



 이규항(전 KBS) 20만 원	 이지연(전 CBS) 30만 원
 백연숙(전 MBC) 20만 원	 반주원(전 MBC) 30만 원

축하합니다

김보민(tbs) 12월 23일 12시 파티오나인 4층 그레이스홀에서 치과의사와 혼인 최윤영(울산MBC) 11월 18일 사업가와 혼인 도경완(KBS) 11월 9일 득녀 김진희(KBS) 10월 15일 득녀 이봉규(CBS) 10월 20일 항공사 직원과 혼인 박나은(울산CBS) 10월 13일 IT업계 종사자와 혼인 한선미(광주CBS) 9월 21일 득녀 류도성(제주CBS) 9월 3일 득남	김선근(KBS) 11월 15일 조부상 왕종근(전 KBS) 11월 7일 모친상
--	---

조의를 표합니다

조수애 11월 30일 tbc 퇴사 이재용 10월 31일 MBC 퇴사	
--	--

수고하셨습니다

KEB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어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Zoom-in 서금랑(전 KBS) 회원



- 1969년 KBS 아나운서
- 2011년 「수필춘추」로 등단
- 수필집 「천사들과 가는 세상」 「개도 인간이다」 「매니큐어 그림 이야기」 출간

서금랑 매니큐어화 지상 전시

삶의 염원을 담아 캔버스에 응축해 놓은, 미술사에도 없었던 새로운 회화 장르

불굴의 의지로 그려낸 사상 초유의 매니큐어화 전시회가 만추의 화랑가를 장식했다. 서금랑 회원이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백송화랑에서 매니큐어화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박찬숙 부회장이 화장품·의약품 원천 기술 보유 업체 (주)한국콜마 운동환 회장의 후원을 주선해 성사되었다.

이다. 크기는 작지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노고가 담겨 있는가!”라고 평했다.

이 회원의 홍익대 미대 동기인 서양화가 구자승 화백(한국미술협회 고문, 홍익대 초빙교수)은 “미술사에도 없었던 창의적 작품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의 그림같이 순수한, 뛰어난 작품들을 감추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전시를 권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원의 동기同期 박찬숙 부회장은 축사에서 “우선 1968년 입사한 동기들과 50년간 끈끈한 우정을 나누며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한다. 김규홍 부회장의 헌신과 문화예술 애호가로 유명한 한국콜마 운동환 회장의 후원으로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서금랑 후배가 애써 그린 이 작품을 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부 회원은 1993년 겨울,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되자 이듬해 1월 회사를 떠나 아내 곁으로

‘생애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전시회를 열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평창올림픽 특별 전시’ 포함 유튜브 등 405회 인터넷 전시회 통해 5천여 점 소개
화장품업계 한국콜마 후원 박찬숙 부회장 주선

돌아갔다. 그 후 골프 캐스터로 TV에 모습을 보였지만 주로 글 쓰고 그림 그리면서, 아내 서금랑 회원의 매니큐어 회화 작품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려왔다. 최근 ‘평창올림픽 특별 전시’를 포함해 405회 인터넷 전시회를 통해 소개한 작품 수가 5천여 점에 달한다.

특히 방우회 이장춘 이사는 <춘추동방송> 블로그 (<http://blog.daum.net/jc21th>)에 연 300회

에 걸쳐 서금랑 회원의 인터넷 작품전을 특집으로 다루며 국내외에 이를 널리 알려왔다.

이정부 회원은 전시회를 마치며 “지독한 미세먼지를 헤치고 복잡한 화랑가 골목까지 오셔서 격려해 주신 이장우 선배님 내외분과 매일같이 나와서 성원해주고 위로 해주신 목멱회원들의 우애를 잊을 수가 없다. 전시회를 성사시켜 주신 박찬숙 전임 목멱회장과 궂은일을 도맡아 주신 목멱회 김규홍 총무, 그리고 우리 부부 때문에 한 동안 중단했던 블로그 작업을 재개하신 이장춘 춘추동방송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글 황인우 (전 KBS) 편집장



축복
35 x 28cm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2018년
누구에게나 축복을, 특히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꿈의 마을
35 x 28cm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2015년
평화롭고, 풍요하고, 사랑이 가득한 마을, 바로 우리가 꿈꾸는 마을이다.



자유, 평화
35 x 28cm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2015년
평창 올림픽 이후, 북녘 동포들에게 '자유와 평화'는 실현 가능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꿈을 꾸다2
35 x 28cm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2018년
누구에게나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좌절하지 말고 다시 꿈꾸자.



평창의 꿈
35 x 28cm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는 평창이 새로운 고향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보았다.



사랑과 정성
35 x 28cm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2018년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서 안 될 일이 있으랴? 가정도 나라도, 모두 사랑과 정성이 만든다.



왼쪽부터 차기정 맹관영 박찬숙 황인우 한국콜마 강준영 전우 신향섭 평론가

‘눈꺼풀 연속’이란 난치 질환의 고통 속에 번뜩이는 직관으로,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매니큐어란 재료를 가지고 작은 매니큐어 붓으로 빠르게 그려내는 초인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병고를 견뎌가며 매니큐어로 도자기나 생활용품 등에 인간애와 희망적 삶을 환상적인 색채로 그려내는 순수 회화 작업을 해온 서금랑 회원(본보 제14호 7면 중인 게재)은 이번 전시회에서 2013년부터 아크릴 색판이나 평면 캔버스 위에 작업한 작품으로 한층 원숙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서금랑 회원은 첫 화랑 전시회를 열며, “참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있을까마는 창작의 고통을 ‘혼신’, ‘심혈’로 표현한 뜻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천천히 쉬엄쉬엄 하려한다. 우선 살고 봐야 하니, 그러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힘이 나고 보람도 컸다. 아이들 그림 같은 내 매니큐어 작품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고마운 분들께 보은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박찬숙 선배님 도움으로 한국콜마 운동환 회장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생애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전시회를 열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살림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만드느라 애쓴 남편, 엄마가 작업할 때 절대로 방해하지 않은 효자 ‘컬링’에게 감사한다. 부모님과 아들이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것 같아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시회를 준비하느라 몸져누운 서 회원을 대신해 남편인 이정부 회원이 내방객을 맞이한 개막식에서, 미술평론가 신향섭 선생은 “서금랑 작가는 그림 재료로 합당치 않은 매니큐어로 대하 같은 철학 세계가 담긴 매니큐어화를 그려왔다. 내면에 침잠해 사랑, 행복, 꿈 등 삶의 염원을 담아 캔버스에 응축해 놓은 그것은 나를 알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그림일기와도 같다. 부모하리만큼 끈질긴 도전이 낳은 새로운 회화 장르



서금랑 매니큐어화 '사랑 풍년' 33 x 23cm 캔버스에 매니큐어 2015년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꽃으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한다. 하지만 여기 이 꽃들의 얼굴은 소박하고 온기 넘치는 인간애, 즉 어린 마음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왼쪽부터 이규항 고광수 박영웅 전우벽 구자승 화백



다시 꿈을 꾸다
35 x 28cm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2018년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다시 태어난 평화의 땅 풍요하고 자유로운 평창이 다시 평화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길



그리움
35 x 28cm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2015년
그리움은 꼭 멀리 있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배려가 없으면 곁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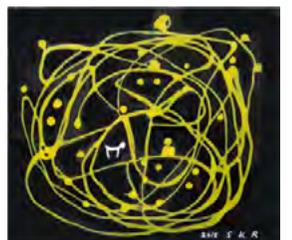
함께 잘 살기
28 x 25cm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2015년
'함께 잘 살기'는 인간애를 최고 덕목으로 내세우는 작가의 대표 주제로 서로 배움과 빈부격차를 해소해 함께 잘 살자는 소박한 희망을 담았다.



아름다운 삶
35 x 28cm 캔버스에 매니큐어 2015년
나에 앞서 '남을 생각 한번 생각해 보는 삶' 만큼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



인생
35 x 28cm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2016년
같은 나무가지에 걸린 각기 다른 삶들. 바로 우리의 모습 같다. 행·불행의 단순 몸짓을 넘어 온갖 우여곡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억
28 x 25cm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2015년
단절 없이 단숨에 흘러 그린 노란 선 - 현대인의 의식 또는 무의식 세계...